깨달음 · 4차산업 · 여성

올해 불교학계 주제 '풍성'

2017 주요 불교계 학회 계획은

원효 스님 탄신 1400주년을 맞는 올해 불교학계의 큰 주제는 '원효'가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동국대 불교학술원 산하 불교문화연구원 HK연구단(단장 김종욱)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을 순회하는 국제세미나를 3월부터 6월까지 연속으로 개최한다. 한국불교학회(회장 성운)는 원효 스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진 논문을 공모해 선정된 논문을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보조사상연구원과 한국정토학회, 원효학연구회도 원효 스님 관련 학술대회를 준비 중이다.

'깨달음'에 대한 이해와 고찰

'원효'라는 큰 주제 이외에도 깨달음, 4차산업 등의 주제도 올해 불교학계를 풍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오는 3월 11일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불교와 설화'를 주제로 다룬다. 그간 불경 언해본에 담긴 불교 설화는 국문학을 중심으로 논의됐지만, 이날 대회에서는 불경 언해본을 불교사적으로 어떻게 고찰하고 이해할 것인지를 다룰 전망이다.

불교학연구회가 올해 가장 집중하는 주제는 하반기에 이뤄지는 '깨달음'에 대해서다. 불교학연구회는 9, 10, 11월 3차례에 걸쳐 추계학술대회를 연속으로 열고 초기 · 부파 · 대승 · 중국불교에 있어서 깨달음의 제문제에 대해 다룬다. 또한 3차례의 학술대회에서 모여진 '깨달음'의 논의들을 12월에 있을 동계워크숍에서 종합토론을 통해 구체화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종남 불교학연구회장은 "올 하반기에 이뤄지는 깨달음 주제의 학술대회에서는 시대별, 지역별 매회 5개 주제로 발표 · 토론하고 이후 동계워크숍에서 종합적 토론을 통해 깊이 있는 고찰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하며 "이 같은 형식의 학술행사는 처음 시행된다. 이를 통해 수행에 대한 바른 이해와 대중화, 담론이 형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설명했다.

AI · 증강현실와 불교의 상관관계

한국불교학회는 오는 5월 12일 동국대에서 '원효 당대의 동아시아 불교의 지적 맥락에서 바라본 원효의 사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와 더불어 눈길을 끄는 것은 하반기에 진행될 '4차산업혁명과 불교' 주제 추계학술대회다.

통칭 '4차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인공지능부터 가상현실, 증강현실, 사물인터넷 등과 같은 신 기술이 4차산업에 들어간다.

한국불교학회는 추계학술대회에서 5개 섹션 아래 25개 주제로 해외 · 국내 학자들의 발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국불교학회 법인 이사 종호 스님(동국대 불교학부 교수)은 구랍 19일 학회 동계 워크숍에 앞선 총회에서 1년 사업계획을 밝히며 "가상현실 · 증강현실과 같은 4차산업혁명과 불교의 연결지점, 포교의 활용성 등을 논하게 될 것"이라며 "익숙치 않은 분야다보니 매월 정례포럼을 통해 연구 ·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불교평론 특집도 '눈길'

불교계 대표 계간 학술지 〈불교평론〉도 올해 다채로운 특집을 준비 중이다. 당장 다가오는 봄에는 '동남아시아와 불교'에 대해서 다루며, 여름호에는 최근 이슈 중 하나인 페미니즘과 불교에 대해 특집을 진행한다. 또한 가을호에는 '지속가능발전과 불교의 역할'을, 겨울호에는 4차산업혁명과 불교에 대한 전반적인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

이도흠 불교평론 편집위원장(한양대 국문과 교수)은 "한국불교는 동남아시아 불교에 대한 전반적 이해가 필요하다"며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인류의 지향 가치로 인식되는 만큼 이에 대한 불교적 이해와 실천방안들이 나와할 시점이다. 또한 4차산업혁명이 진행되는 지금 시점에서 가상공간과 인공지능에 대한 불교적 고찰 등도 앞으로 한국불교에게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다. 신성민 기자

'제종교장' 연구 韓中日 학자 한자리에

고려대장경硏, 13일 국제학술회의 개최

일명 '속장경(續藏經)'으로 잘 알려진 〈고려 제종교장(諸宗敎藏)〉에 대한 한 · 중 · 일 학자들의 연구성과를 만날 수 있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린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1월 13일 오전 10시 서울 안국동 '월드컬처오픈 W스테이지'에서 '동아시아 불교장소(佛敎章疏)와 대각국사 의천의 제종교장'을 주제로 고려교장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고려 제종교장〉은 대각국사 의천이 1091년부터 10년에 걸쳐 완성한 것으로 경율론 삼장에 대한 장소(章疏)를 수집해 간행했다. 의천은 개경 흥왕사에서 10년 동안 교장 문헌 1010부 4865권에 대한 필사와 교정, 판각, 인쇄, 검수해 흥왕사 대장전에 봉안했으나 1232년 몽고 2차 침입으로 모두 소실됐다.

그간 〈고려교장〉은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敎藏總錄)〉이란 고문헌에 의해서만 전해져 왔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이 문헌에 수록된 장소문헌을 일본과 중국, 국내에서 찾아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DB)화 했다.

교장 문헌들은 그간 일본과 국내 등 150여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사결과 250여권이 확보돼 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 이미지 촬영 작업이 이뤄졌다.

이번 학술대회는 5년간 〈고려교장〉 문헌의 조사연구 성과를 공개하고 DB자료를 공유하는 첫 자리로 동아시아의 〈고려교장〉 문헌에 대한 실태와 연구,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라는 데 의미가 크다.

논문 발제 역시 한 · 중 · 일 삼국의 관련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한다. 한국학자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교수는 '교장의 성립과 역사적 변천'을, 김성수 충주대 교수는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조직 및 체계 서지학'을, 남권희 경북대 교수가 '교장 문헌연구 및 방법론'을,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는 '간경도감본 성유식론요의등초권3, 4의 판본대조 연구'를, 서대원 충북대 교수가 '교장의 서명에 대한 제고(Ⅱ)'를 각각 다룬다.

해외 학자는 팡광창 중국 상하이사범대 교수가 '약담 탁덕본(卓德本) 〈전당서호소경사결정사집〉 고려의천인쇄 휴거본'을, 오치아이 토시노리 일본 국제불교학대학원대학 교수가 '일본장소의 현상과 과제'을, 이시츠카 하루미치 고산지(高山寺) 책임역원이 '고산지본 의천록과 고산지경장'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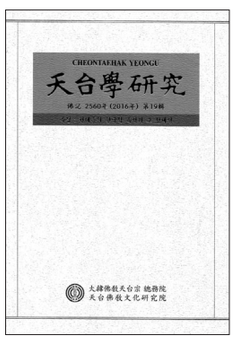
'고려교장' 실태 · 역사 살필 기회

한 · 중 · 일 관련학자 대거 참여

이번 국제학술대회에 대해 고려대장경연구소는 "지난 5년간의 '고려교장 결집 및 DB구축사업'은 고려대장경의 계보를 되찾고, 1232년 이후 사라졌던 고려대장경의 새로운 귀환을 통해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공유를 위해 추진됐다"며 "이번 학술회의는 한 · 중 · 일의 학자들이 각국에서 소장되고 있는 〈고려교장〉 문헌에 대한 실태와 연구 그리고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천태종 정체성 분석한 '천태학연구' 19집 발간

천태불교문화연, 구랍 30일



천태종 총무원과 천태불교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천태학 연구〉 19집이 발간됐다.

〈천태학 연구〉 19집은 '천태종의 한국적 특성과 그 정체성'을 주제로 한 천태불교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을 특집으로 실었다.

주요 논문으로는 '천태종의 정체성 확립과 그 방향(이봉춘)'을 비롯해 '천태종의 수행체계와 생활불교(이광도)', '천태종 출가자의 일상행의와 제도(고우익)', '천태종에 있어서 불교문화전통의 계승과 발전 방향의 새로운 모색(석길암)' 등이다.

또한 연구논문으로는 '천태종의 이념과 진로- 〈법화경〉은 무엇을 제시하는가(권기종)', '천태종 세계화의 이념과 방향(정병조)', '십선계의 수지와 그 승속 공통계적 특성(백도수)' 등이 수록됐다. 신성민 기자

월정사 석조보살상 국보 승격됐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
'월인천강지곡' 권상도
사리장엄 등 6건 보물로
보물 지정 예고도 잇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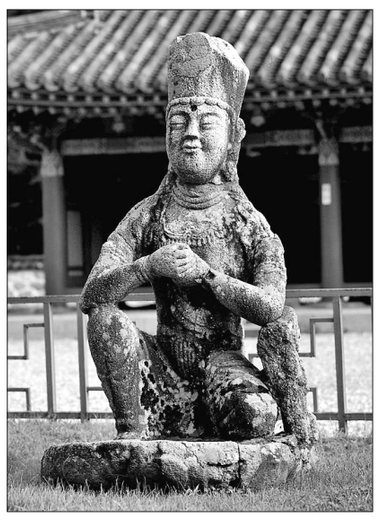
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주지 정념) 석조보살좌상이 국보로 승격됐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월정사 석조보살좌상과 〈월인천강지곡 권상〉을 국보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 등 6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1월 3일 밝혔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은 본래 국보 제48호 월정사 8각 9층석탑의 남쪽 전방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 공양을 올리는 모습을 하고 있어, 탑과 보살상은 하나의 구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돼 왔다. 하지만 탑은 국보로, 공양보살상은 보물로 지정돼 그간 별개의 문화재로 인식됐다.

이번 승격에 따라 월정사 8각 9층 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은 하나의 문화재로 인식돼 '탑전(塔前) 공양보살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탑전 공양보살상은 이전에는 찾기 힘든 고려 전기적 특징인 동시에 다른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창적인 도상과 구성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면서 "국보로 지정된 석탑과 묶어 국보로 승격하여 조성 당시의 조형적, 신앙적 의미를 모두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보 제48-2호로 지정된 월정사 석조보살좌상.

국보 제320호 '월인천강지곡 권상'은 훈민정음 창제 이후 가장 빠른 시기에 지어져 활자로 간행된 점에서 창제 후 초기의 국어학 연구와 출판인쇄사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헌임을 인정받았다.

또한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 직전 신하들과 함께 발원한 금강산 출토 이성계 발원 사리장엄구 일괄(보물 제1925호)과 국새 황제지보(보물 제1618-2호), 국새 유서지보(보물 제1618-3호) 등 6건이 보물로 지정됐다.

보물 지정 예고도 이어졌다. 문화재청은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와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 등 7건을 구랍 12월 29일 보물 지정 예고했다.

경주 불국사 삼장보살도는 1739년 밀기(密機), 채원(彩元), 서징(瑞澄) 스님 등 경북지역 화승들이 경주 거동사(巨洞寺) 오주암(五周庵)에서 제작해 불영사에 봉안했다는 화기가 남아있어 18세기 전반기 삼장보살도 도상 및 화풍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됐다.

곡성 도림사 아미타여래설법도는 도림사 보광전의 후불화로 봉안된 것으로 18세기 전반기 화풍과 화사(畵師) 간 교류를 통한 화맥의 전승관계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작품이다.

이밖에도 몽산화상법어약록(언해)을 비롯해 김윤겸 필 영남기행화첩, 청자 상감퇴화초화문 표주박모양 주전자 및 승반, 청자 죽순모양 주전자, 청자 투각연당초문 붓꽂이가 보물로 지정 예고됐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효 사상이 인문학에 미친 영향은?

동국대 세계불교학硏, 3월 18일 학술대회

원효 스님의 사상이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동국대 세계불교학연구소(소장 고영섭)는 3월 18일 동국대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분향 원효가 한국 인문학에 미친 영향'을 주제로 제6차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원효 탄신 1400주년을 맞아 원효 스님 사상이 한국의 문학, 역사, 철학, 종교, 예술 분야에 미친 영향을 총체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1, 2부로 나눠 진행되는 세미나에는 정효구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을, 동국대 불교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한 전준모 씨가 '원효가 한국사학에 미친 영향'을,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철학에 미친 영향'을 1부 시간에 발표한다.

2부에서는 송현주 순천향대 교양학부 교수가 '원효가 한국종교에 미친 영향'을, 강소연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가 '원효가 한국예술에 미친 영향'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박수빈 상명대 국어국문학과 외래교수, 김상영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 김원명 한국외대 철학과 교수, 김영일 동국대 불교학과 외래교수, 주수완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외래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연인원 7만명이 관람하는 힐링전문 템플스테이도량
선무도 공연과 함께하는 골굴사 성지순례
오감으로 느끼는 생생한 문화체험
보고 듣고 따라하고 느낌으로 배운다
선무도와 불교종합예술공연 - 체험 - 감동의 파노라마
사천왕 四天王 DEVAS GUARDIAN
1500년 마애불의 미소가 삼세업장을 소멸하는 골굴사
【주변성지 : 기림사, 오어사, 석굴암, 문무대왕 수중릉】
◈공 연 내 용 : 선무도 · 승군의 검무 · 화랑의 봉술 · 아수라의 바라무 · 사천왕의 탈춤 선무드라춤 테라피 · 힐링살풀이 · 불교전통무용 · 민요
◈ 템플라이프(유료) : 선무도체험 · 공연관람 · 공양(식사)
◈ 선무도 지도자 과정 신입생 모집 : 2년 전액 무료 (홈페이지 참조)
◈ 선무도 공연 ◈
오후 3시 30분 (무료공연)
월요일은 쉽니다.
◈ 선무도 수련원 ◈
· 서울본원(종로) 02)763-2980
· 서울 강남지원 02)599-5554
· 부 산 본 원 010-2554-8100
· 울 산 지 원 052)276-6271
선무도총본산 골굴사 재)선무도 대금강문
☎ 054)744-1689 / 775-1689 www.sunmudo.com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현문 현각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